

전남

편백나무 황당 벌목사건

장성산림조합 사업지 착각 사유림 1400그루 삭둑



봄바람 들녘 강진군 성전면의 한 양파밭에서 주민들이 최근 강풍에 손상된 잡초방직용 비닐을 손질하고 있다. 양파는 줄기에서 독특한 냄새가 나며 소화액 분비를 촉진한다. <강진군 제공>

“바른 식생활이 농촌 위하는 길”

농협광주본부 ‘식사랑 농사랑 운동’ 결의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전 국민과 함께하는 ‘식(食)사랑 농(農)사랑운동’ 정착을 위해 지난 9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12년 지도사업 전략회의 및 식사랑 농사랑 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광주 관내 지도사업 및 여성복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

산주(山主) 김모(대전시 거주)씨는 지난해 12월 산 관리를 하던 동네 사람으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진화를 받았다.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편백나무숲(3만 6000평) 가운데 3분의 1이 베어졌다는 것.

30여년 동안 키워 온 편백나무들이 산 주인도 모르는 사이 잘린 것이었다. 사고경위를 알고 보니 여허구니 없게도 숲 가꾸기 사업과정에서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다른 산의 나무를 잘못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장성군 산림조합이 장성군에서 발주한 2011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대상지가 아닌 다른 사유림을 무단 벌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11월 장성군 산림조합과 사업비 7000여만원에 산 42.65ha를 대상으로 2011년 숲가꾸기 3차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간벌(숙아베기)과 천연림 보육,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시공허가가 난 곳이 아닌 김모씨 소유 산(면적 51ha)에 자라는 30년생 편백나무 1400그루를 무



단 벌목하는 오류를 범했다.

산림조합 측은 “지역의 GPS(위성 위치 파악 시스템) 좌표 입력착오로 다른 번지수를 적용, 공사를 시행했다”며 “편백나무의 (당 기준을 적용해 산주에게 벌목된 나무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주 김모씨는 “산 주인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허가없이 사유재산을 훼손하고도 나무값만 보상하려 하고 있다. 발주자인 장성군이 산림조합 실무자에게 책임을 덮어

씌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또 “관리·감독해야 할 장성군과 시공업체인 산림조합이 벌목 전 사업대상지 산주와 현장 확인작업만 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성군 역시 탁상행정과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성군은 이번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송치했다.

<중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yongho@>

광주호 ‘독높이기’ 착수

농어촌공 489억 투입 내년말 완공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이 본격화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형운)는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에 착수해 내년말 완공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광주호 독 높이기 공사는 내년까지 489억원을 들여 1737만㎡에 불과한 담수능력을 2326만㎡으로 589만㎡을 늘리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여유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토록 독을 높이고 수문을 만들며 저지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독을 보강하게 된다.

또 광주호 주변에 있는 가사문화관과 소재원 등의 문화재를 비롯해 호수 생태공원과 연계해 저수지 하류부에 수변공원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호는 지난 1976년 준공돼 35년이 경과된 저수지이다. 2007년 정밀안전 진단결과 여수로 방수로(물받이 시설)가 배제능률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인 'D'등급 진단을 받았다.

김형운 전남지역본부장은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착수를 계기로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에 대비 추가용수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거듭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본부는 총 6908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14개소 ▲섬진강 4개소 ▲유역박 3개소 등 총 21곳 저수지를 대상으로 독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벌교역 광장 관광명소 변신

보성군, 18억 들여 분수 설치 등 새단장

보성군이 벌교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을 위해 추진한 벌교역 광장 조성사업이 최근 마무리됐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벌교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8억원 들여 체동선로 228번지 일원 4400㎡에 바닥분수, 조경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정비했다.

1930년 첫 영업을 시작한 벌교역은 근·현대사의 굴곡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으로 오랫동안 벌교의 상징이자 첫 관문으로서 지역과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조경대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되면서 꾸준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태백산맥 문화거리’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한국철도공사의 광장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협약 체결을 맺어 예산을 절감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벌교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벌교역전 도로 확장 ▲‘태백산맥 문화관’ 개관 ▲갯벌 체험마을 조성 ▲‘태백산맥 문화거리’ 조성 ▲벌교 복지센터 신축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홍안나철 선생 선양사업 ▲벌교생태하천 조성사업 ▲장화 재해 위험지구 펌프장 공사 ▲벌교교차점 종교배양장 조성 ▲벌교 스포츠 센터 건립 ▲벌교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대형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승성기자 kim0686@>

올 첫 녹차 1봉, 120만원 낙찰

보성군 ‘청명차 만들기’ 행사 성료

청명(淸明)을 맞아 만든 보성 햇차(30g)가 120만원에 낙찰돼 화제다.

친환경 녹차마을 작목반(회장 이상철)과 전남차연구회(회장 조현군)는 지난 5일 보성군 회천면 영천마을에서 차생산능가와 차재 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청명차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명차 만들기를 비롯해 들차회, 화전놀이, 청명차 경매행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천 서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30여명이 참여해 세운을 내민 여린 차잎을 따 청명차를 만들고 시음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낙찰된 청명차는 1봉지(30g)가 120만원에 낙찰됐으며, 인천의 차 애호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조현군 전남차 연구회장은 “친환경 유기농 녹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마을농가의 소득 창출 및 차농가의 단합된 힘을 결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과 차 생산자조합은 오는 5월 16~20일 한국차로서 문화공원에서 ‘제38회 보성 다향제’를 개최한다.

<중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버섯학교’ 운영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소장 윤병선)는 버섯 농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녹색산림 버섯학교’를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버섯학교는 도민이나 귀농 희망자들이 대상이며, 제1기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자원연구소 내

부 버섯 전문가 등이 손쉬운 실생활 버섯재배법 이론과 실무기초를 직접 교육하며, 실습실습과 현장 실무교육으로 운영한다.

수강생 모집은 9~16일이며, 선착순 15명을 선발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수업이 진행된다. 문의(061-336-6302), <오공목기자 kroh@kwangju.co.kr>

대인동산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복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
당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행복한 공인중개사
(새민금, 변산반도 펜션 전문)
■ 경포 원룸, 펜션, 다세대주택 부지
2중주거지역, 당 2334㎡ 매12억
현도리점, 계획도로 개통시 지가 상승
폭 큼, 투자 유망 한해 원룸 공급 부족
여를 한술만 영업해도 년수익 보장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
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대인동산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복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
당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행복한 공인중개사
(새민금, 변산반도 펜션 전문)
■ 경포 원룸, 펜션, 다세대주택 부지
2중주거지역, 당 2334㎡ 매12억
현도리점, 계획도로 개통시 지가 상승
폭 큼, 투자 유망 한해 원룸 공급 부족
여를 한술만 영업해도 년수익 보장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
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